**민0147 Note**

**◆ 이스라엘의 열두지파**

1.르우벤- 2.시므온-(레위:하나님의 것)- 3.유다- 4.단- 5.납달리- 6.갓- 7.아셀-

8.잇사갈- 9.스불론- 디나(딸) -(요셉)10,에브라임- 11.므낫세- 12.베냐민

창2932. 이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,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르우벤(레우벤:그대들은 아들을 보라,야곱의 아들 르우벤)이라 부르니라, 이는 그녀가 말하였음이니 곧, 분명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(오니:억압,비참함,고난,고통)을 바라보셨느니라, 그러므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니라,

창2933.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, 아들을 낳고, 말하니라,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, 그러므로 그분께서 내게 이 아들을 또한 주셨느니라,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시므온(쉼온,쉬므온:들음,야곱의 아들 중의 하나 시므온)이라 부르니라,

창2934.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, 말하니라,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내게 합류될 것이니라, 이는 내가 그에게 셋의 아들들을 낳았음이라,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레위(레비:달라붙은,연합된,야곱의 아들 레위)라 불리웠느니라.

민0312. 그리고 내가, 보라,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태(胎)(레헴:자궁,모체)를 여는 모든 초태생 대신에,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로부터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,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내것이니라,

창2935.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, 이에 그녀가 말하니라,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니라, 그러므로 그녀가 그의 이름을 유다[예후다: (야다;손을펴다, 찬양하다,외)에서 유래,귀명(貴名)한,다섯 이스라엘 사람 유다,유다]라 부르니라, 그리고 낳기를 떠나니라,

창3006. 이에 라헬이 말하니라, 하나님이 나를 판결하시고[딘: 다스리다,(재판관으로서) 재판하다,(법으로) 싸우다,판결하다,심판하다,재판을 집행하다,(소송 이유를)진술하다,사이가 나쁘다], 내 음성을 또한 들으셔서, 내게 아들을 주셨느니라, 그러므로 그녀가 그의 이름을 '단(단:판관,야곱의 아들들 중의 하나 단)'이라고 부르니라.

창3008. 이에 라헬이 말하니라, 큰 씨름(나프툴:씨름한,몸부림,씨름)들로 내가 내 자매와 씨름하였느니라[파탈:꼬다,투쟁하다,사곡(邪曲)하다,완고하게,불미스럽게,씨름하다], 그리고 내가 이겼느니라(야콜:가능하다,할 수 있다,해도 좋다,적어도 어느정도로는,얻다,참다,이기다,능력이 있다,극복하다),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납달리(나프탈리:나의 씨름,야곱의 아들 납달리)라 부르니라,

창3011. 이에 레아가 말하니라, 군대가 오느니라 [가다드:군집하다,깊은 상처를 입히다,군대별로 회집하다,(함께 군인으로) 모이다,자해하다],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'갓(가드:야곱의 아들 갓,선지자)'이라 부르니라,

창3013. 이에 레아가 말하니라, 나는 행복하니라(오쉐르:행복,행복한,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 아셀), 이는 딸들이 나를 복되다(아솨르: 곧다,평탄하다,옳다,행복하다,번성하다,복되다,복되다고 하다,인도하다,안내하다,구조하다)고 부를 것임이라,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아셀(아쉐르:행복한,야곱의 아들 아셀,팔레스틴의 한 장소 아셀)이라 부르니라,

창3018. 그리고 레아가 말하니라, 하나님이 내게 나의 보상(사카르:계약금의 지불,봉급,요금,생계비,매상,이득,임금,가격,보상,급료,가치,상급)을 주셨으니, 이는 내가 내 몸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음이라, 이에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잇사갈(잇싸카르: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,야곱의 아들 잇사갈)이라 불렀느니라,

창3020. 그리고 레아가 말하니라, 하나님이 내게 좋은 혼인 지참금(자베드:선물,결혼 지참금)으로써 옷입혀 주셨느니라(자바드:수여하다,견디다),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니, 이는 내가 그에게 여섯의 아들들을 낳았음이라,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스불론(제부룬:거주지,야곱의 아들 스불론,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)이라 불렀느니라,

창3021. 그리고 후에 그녀가 딸을 낳고, 그녀의 이름을 디나[디나:공의(公義),야곱의 딸 디나]라 불렀느니라,

창3024.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요셉(요쎄프:그가 더할 것이다,더하는,일곱 이스라엘인의 이름 요셉)이라 불렀느니라, 그리고 말하니라, 여호와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보태실 것이니라,

창4805. 그리고 내가 애굽으로 네게 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네게 태어났던 네 두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,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그들은 내것이 되느니라,

창4814. 그리고 이스라엘이 알고서(사칼: 신중하다,신중히 행동하다,이지적이다, 숙고하다, 신중한,신중히 처리하다,이해하다,지혜,현명하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다,재치있게 안내하다), 그의 손들을 이끌어, 그의 오른손을 뻗어, 그것을 손 아래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,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니라,

▶창4820. 그리고 그가 그 날에 그들을 축복하니라, 말하되, "네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느니라, 말하되. '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같이, 또 므낫세와 같이 만드시느니라' ",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우니라,

창4822. 더 나아가, 내가 네게 네 형제들 위에 한 몫을 더 주었나니, 그것을 내가 내 검으로써, 또 내 활로써 아모리족의 손에서 취하였느니라,

창3518. 그리고 그녀의 혼(네페쉬:호흡하는 생물,동물,생명력,어떤 식욕,숨,생물,욕망,혼령,생명,갈망,정신,어떤 사람,자신,의지)이 떠나는 중에 (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),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, 그녀가 그의 이름을 '벤오니(벤-오니:내 슬픔의 아들,베냐민의 원래 이름 베노니,베노니)'라 부르니라,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'베냐민(빈야민:오른 손의 아들,야곱의 말째 아들 베냐민)'이라 불렀느니라,